

# “상생금융 지원 통한 지역 특화 ESG 경영 확대”

## 광주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방향 핵심 역량 강화·내실경영 등 주력 고병일 은행장 “지역 밀착 경영”

광주은행이 지역 밀착 경영 강화 및 상생 금융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 ESG 경영 확대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을 시상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4년 경영성과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경영방침과 중점 추진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임직원들의 세일즈 능력 향상을 위해 홈쇼핑 최다매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리얼세일즈(주)황현진 대표를 초청해 ‘내일이 그려지는 영업의 품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 회의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한국 경제의 1%대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지난 20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열린 2025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025년 상반기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의 금융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4대 경영 방향으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 △핵심 역량 강화 △지역 밀착·ESG 경영 고도화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경영 추진을 강조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래전략팀과 외국인전략사업팀을 신설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 △기업금융센터, 거점별 WM라운지, 외국인 전문 금융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맞춤형 채널 전략 추진 및 디지털 경쟁

력 강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지역 밀착 경영 강화 및 상생 금융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 ESG 경영 확대 △핵심 사업을 통한 전략적 자산 증대 및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감한 리더십 추진을 통해 영업 자산 성장을 가속화해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을 당부했다.

창립 57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 동반성장을 꿈꾸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큰 힘을 쏟았으며, 지난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발 빠르게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1000억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하는 등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역할에 앞장서 오고 있다.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현재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

계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광주FC의 2024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통 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해 지역 스포츠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편, 우리 고장 출신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자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단인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며 지역 스포츠 스타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한국능률협회 선정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7년 연속 1위 △미국 포브스·CNBC 선정 ‘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 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금융감독원 주관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3년 연속 우수 사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건강가전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31일까지 9층 본 매장에서 건강 가전브랜드의 ‘효 핑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바디프랜드, 파나소닉, 세라젠, 브람스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부모님께 드릴 명절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안마의자 등 건강 가전을 다양한 혜택으로 제안한다. 먼저 현대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일 브랜드 구매 시 구매 금액대별 최대 12%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3% 할인, 최대 3개월 무이자, M포인트 5% 사용 가능 혜택까지 제공한다. 기타 결제 수단으로 구매 시에는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매출 90조 돌파

현대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 합계가 9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기아의 성장세와 함께 동반 성장 행보가 결실을 맺은 결과란 분석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들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 합계가 90조2970억원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대차·기아의 약 5000곳에 달하는 2·3차 협력사 매출액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상회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들 협력사들은 현대차·기아의 국내 1차 협력사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다. 또한 부품 비전문업체(원부자

재, 화학, 설비 등) 등을 제외한 237개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2023년 별도 기준 매출액이다. 이들 협력사의 매출액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현대차·기아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매출액 합계는 2001년 21조1837억원에서 2023년 90조2970억원으로 326% 급증했다. 특히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기아가 분석 대상 부품 협력사 매출액(90조2970억원) 기준 국가 경제 파급 효과를 추계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237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5조6000억원에 달했다. 취업 유발 효과는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기자**

## 광융합산업진흥회, 조선대 등과 학점교류 협약

###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목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레이저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조선대, 부산대, 인하대 대학원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3개 참여 대학은 이번 학점 교류협약을 통해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국내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레이저 및 광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레이저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간 약 63억원 규모로 레이저 및 광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270명 육성하는 사업으로,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개발·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저 관련 대·중·소기업 18개사가 채용 연계, 현장실습, 멘토링 등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39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산학 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현재 11건

을 운영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학점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방산업,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및 의료·뷰티산업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술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레이저기술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학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점교류 협약은 단순한 교육협력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 광주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합동점검

### 백화점·대형마트 5곳 대상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2~23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한다.

## 중흥그룹, 협력업체 공사대금 설 명절 이전 조기 지급

### 1000억원 규모 전액 현금 지급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

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초과·주류·화장품·잡화·종합제품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류를

집중해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횡수를 초과하거나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 등에 포장 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병하 기자**

들이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3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중흥그룹은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직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최권범 기자**